‘금지성분’ 검출된 2080치약… “애경산업 수사의뢰 검토”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애경산업 2080 치약의 트리클로산 검출 관련 브리핑에서 트리클로산이 검출된 수입 제품이 진열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애경산업이 수입한 2080 치약 6종과 국내 제조 치약 128종을 전수조사한 결과, 수입 제품 870개 제조번호 중 754개(86.6%)에서 최근 국내에서 사용 금지된 물질인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 검출됐다고 20일 발표했다. 반면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직접 제조한 128종은 모두 불검출로 나타났다. /뉴시스

조사 결과 애경산업 트리클로산 검출 파악 후에도 늑장
식약처 “회수 지연, 필요 시에 수사의뢰도 검토할 예정”
징벌적 과징금 부과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용이 금지된 성분인 트리클로산 검출 사실을 파악하고도 회수 조치를 지연한 애경산업에 대해 행정처분은 물론 수사 의뢰까지 검토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과 관련해 수입 업무 정지 등 추가 조치도 함께 고려 중이다.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열린 애경산업 ‘2080치약’ 현장점검 결과 브리핑에서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애경산업과 같은 판매업체는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제품 회수계획서를 5일 안에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식약처에 따르면 애경 측은 식약처 보고 전인 지난달 19일 비정기 검사 도중 트리클로산 검출 사실을 파악하고도 법정 기한을 넘겨 이달 5일에야 제출했다.

식약처는 애경산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회수에 필요한 조치가 지연되는 등 회수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해외제조소에 대한 수입 품질관리가 미비한 점 ▲트리클로산이 섞인 수입 치약을 국내에 유통한 점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 결과를 근거로 행정처분 등 필요한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신 국장은 “행정처분과 함께 회수 절차 미준수 등은 벌칙 조항이 있다”며 “필요시에는 수사의뢰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행정처분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신 국장은 “행정처분은 법리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행정처분심의위원회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해외 제조소 도미가 국내에 납품한 치약은 애경산업 제품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확인한 결과 애경 치약만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날 식약처는 수입 및 국내제조 2080 치약검사 결과도 발표했다.

식약처는 도미에서 2023년 2월부터 제조해 애경산업이 국내에 들여온 2080치약 수입제품 6종의 수거 가능한 870개 제조번호 제품과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2080치약 128종을 수거해 검사했다.

그 결과 수입 치약(6종) 870개 제조번호 중 754개 제조번호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된 반면,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128종에서는 모두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트리클로산이 체내에서 빠르게 제거돼 축적 가능성이 적은 점과 인체 노출 위해평가 결과와 해외 기관들의 안전관리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인체 위해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유럽 등 해외의 경우 치약에 트리클로산이 0.3% 이하로 쓰일 경우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한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김규봉 단국대 약학과 교수는 “0.3% 이하 트리클로산 함유 치약 사용에 대해 위해발생 우려는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와 별개로 수입 치약의 트리클로산 검출에 대한 국민 우려를 고려해 관리 강화 대책에 나섰다.

식역처는 “치약의 최초수입, 판매, 유통단계별 검사와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라며 “치약의 제조·품질관리기준 의무화 검토 및 위해 의약외품 제조·수입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법적 근거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전남 김치, 미국 시장 공략 나섰다

나주 골든힐, 알타리김치·파김치 등 5종 1천830박스 수출

미국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식단 지침에 김치가 공식적으로 포함되면서 김치의 효능이 주목받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전남김치사업협동조합과 손잡고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섰다.

미국 보건복지부와 농무부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미국 연방 식단 가이드라인(Dietary Guidelines for Americans)’은 국가 차원의 식생활 정책 기준으로, 학교급식·군급식·영양지원 프로그램 등 미국 공중보건 체계 전반에 적용되는 핵심 지침이다.

최근 발표된 미국 연방 식단 가이드라인 개정안에는 발효식품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 형성에 기여해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으며, 김치가 대표적 발효식품의 구체적 사례로 언급됐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20일 나주에 있는 ㈜골든힐에서 ‘전남 김치 미국 수출 선적식’을 개최하고, 전남해외상설판매장을 거점으로 김치 수출 확대에 나섰다.

선적식에는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과 김진태 전남김치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상웅 ㈜푸른농업회사법인 대표, 한문철 전남식품수출협회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미국으로 수출되는 전남 김치는 알타리김치, 파김치, 포기김치 등 5종이다. 총 1천830박스로, 약 9천만 원 규모다. 해당 물량은 미국 전남 해외 상설판매장을 중심으로 현지 유통·판매될 예정이다.

미국에선 한류 확산과 함께 발효·비건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김치 수요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 특히 김치의 건강식 이미지 확산과 발효식품에 대한 관심이 맞물리며 현지 소비자 수요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 김치 대미 수출액은 2023년 155만 달러, 2024년 157만 달러, 2025년 184만 달러로, 전년보다 17.2% 증가하는 등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진태 전남김치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번 미국 수출은 전남 김치의 맛과 품질, 안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라며 “조합 차원에서도 원료 관리와 제품 표준화를 통해 글로벌시장에서 신뢰받는 전남 김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종팔 기자

광주시, “여성 잡페스타 운영자 찾습니다”

여성 일자리 박람회 기획·운영할 단체 26일까지 공모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여성의 취업과 경력 유지 지원을 위한 여성 일자리 박람회인 ‘2026 광주여성 잡(JOB) 페스타’를 운영할 단체(보조사업자)를 오는 2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광주여성 잡(Job) 페스타’는 구인 기업과 여성 구직자를 현장에서 직접 연결하는 취업 연계 박람회다. 박람회는 기업 현장 면접, 맞춤형 취업 상담, 이력서·자기소개서 상담(클리닉) 등 실질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올해 보조사업자는 행사 기획·운영 전반을 맡아 ▲참여기업 발굴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유관기관 협업 ▲행사 홍보 및 현장 운영 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광주시는 선정된 보조사업자를 통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5개), 여성인력개발센터(2개) 등 지역 여성 취·창업 지원기관과 협력해 오는 6월 말 시청 시민홀에서 ‘2026 광주여성 잡(JOB)페스타’를 개최할 계획이다.

보조사업자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소재한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으로, 최근 3년간 여성 일자리박람회 운영 실적이 있는 기관이다. 접수는 광주시 여성가족과(613-2274)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https://www.gwangju.go.kr/contentsView.do?pageId=www79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영길 기자

광주시, 즐기고 머무는 전통시장 만든다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 29개 시장·상점가 선정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전통시장 활성화 및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 공모에서 지역 전통시장과 상점가 29곳이 선정돼 국비 14억6000만원(총사업비 20억7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광주지역 전통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 2곳 ▲시장경영 지원 25곳 ▲안전관리패키지 지원 2곳 등이다.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은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과 전통시장을 연계한 특화 콘텐츠를 개발·운영하는 2개년 사업이다. 지난해 남광주시장에 이어 올해 무등시장과 용봉패션의거리가 새롭게 선정되면서 광주지역에서는 총 3개 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운영된다.

‘시장경영 지원’ 사업은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운영 등을 통해 시장 상인들의 전문성과 경영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25개 시장과 상점가가 선정됐다.

‘안전관리패키지 지원’ 사업은 전통시장 화재 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해 전기·소방·가스 등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동복개상가 등 2곳에 대해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백은정 경제정책과장은 “문화관광형시장 등 다양한 특성화사업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고 머무는 전통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임채일 기자

전남 토지 면적 축구장 168개만큼 늘어

전라남도는 2025년 말 현재 토지 면적을 1만 2천364㎢, 593만 필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축구장 크기(105m×68m)의 168배에 해당하는 1.2㎢가 늘어난 규모다. 토지 면적 증가는 무안오룡지구 택지개발 6단계 준공과 목포 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 등 대단위 공유수면 매립 준공의 영향으로 보인다. 전남의 토지 면적은 전 국토의 12.3%를 차지하며, 전국 광역단체 중 세 번째로 넓다.

시군별로는 해남(1천45㎢), 순천(911㎢), 고흥(807㎢) 순이며 지난해보다 가장 많이 늘어난 시군은 목포시와 무안군으로 각각 0.5㎢ 증가했다.

토지 용도별로는 임야가 56%, 농지가 2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각종 개발사업과 SOC 확충으로 도로, 철도, 공장용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남이 전통적인 농·어업 중심지에서 벗어나 AI 기반의 첨단산업 거점과 에너지 수도로 탈바꿈하고 있음을 데이터로 증명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에 확정된 지적 데이터를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을 통해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우 인 기자